

(주) 금 호

제 21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지난 2월 27일 제 21기 정기 주주총회가 본사 대회의실에서 주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총회에서 의장인 윤양중 사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의 장기 경영계획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주주에게 경의를 표하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주주들에게는 보통주 5%, 우선주 6%의 배당이 실시되었으며 임원선임건 등 6개 의안을 가결시켰다.

‘파리-다카르 랠리’ 참가

‘지옥의 경주’로 불리는 제 15회 파리-다카르 랠리에서 금호타이어를 장착한 ‘스포티지(기아자동차)’가 세계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죽음의 코스를 통과하여 전구간을 달린 쾌거를 이룩하였다. 금호타이어는 국산자동차와 합작으로 세계적인 랠리대회에 처음으로 정식 엔트리를 받고 출전하여 첫 전구간을 달린 기록을 남김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사에 한 획을 긋게 됐다.

파리-다카르 랠리는 총 8,897km 구간을 주행하여 목표지점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기후

마저 불순해서 완주율이 1/3에 불과한 최악의 조건이었는데도 우리의 자동차가 성공을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간 항공기용 타이어와 함께 첨단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주용 타이어를 개발해 온 우리회사는 이번이 처음 출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을 당당히 인정받아 다시 한번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특허 출원 우수 성과 거둬

지난 5년간 국내기업중 특허 상표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분야의 권리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중에서 우리회사는 29위를 기록하여 업계 1위를 차지하였다. 특허청이 지난 2월 9일 발표한 산업재산권 다출원 1백대 기업 분석에 따르면 우리회사는 지난 '88년부터 5년간 총 869건을 출원하였으며, 권리별로는 특허 146건, 실용신안 119건, 의장 344건, 그리고 상표 260건이다. 한편 특허청이 국제경쟁구조가 기술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어 수출을 위주로 한 대기업들의 기술개발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우리회사도 이 점을 감안하여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여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93년 금호 장학금 수여

'93년 금호 장학생에 대한 장학

금 수여식이 지난 2월 18일 윤양중 사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윤양중 사장을 비롯한 담당임원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대(공업화학과) 유태현군 외 6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금호 장학생은 7개 추천 대상학교 지정학과 1학년 재학생 성적우수자로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2학년 1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이 지급된다. 지금까지의 금호 장학생은 39명이며, 이들중 11명이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의 각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35시리즈 ZR타이어개발

우리회사는 첨단기술력과 꾸준한 연구개발 노력 끝에 '92년 45시리즈의 개발에 이어, 올해에는 35시리즈 ZR타이어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91년 3월 50시리즈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된 35시리즈 타이어는 규격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최저한계의 시리즈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타이어 시장에서도 최근에서야 도입되기 시작한 첨단제품이다.

35ZR 타이어는 넓은 접지 면적과 단일방향 패턴설계로 젖은 노면과 마른 노면에서 우수한 주행안정성과 코너링 성능, 내구력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3개의 피치 배열로 소음을 최소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타이어제조(주)**

**제39기 정기 주주총회 열려**

한국타이어제조(주)의 제39기 정기주주총회가 지난달 2월 24일 본사 강당에서 열렸다.

회사발행 총수 75%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총 100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의 총회에서 홍건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창업을 선언한 이후 경영다각화 전략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온 A/W공장을 충남 금산군 저원면에 준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음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하여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의 변화를 직시하고 부족한 역량을 시급히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룩한 외형적 기반과 반세기에 걸친 장인정신으로 쌓아올린 기술력과 품질우위를 뿌리로 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김휘중·김종훈·한영길 이사가 다시 선임되었으며, 나병철·양정오 이사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김인태 감사가 중임되었다.

이날 확정된 주식배당률은 14%로 배당금은 오는 4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제품 「오틀모 골드」 출시**

한국타이어제조(주)는 기존의 「오틀모 프러스」의 제품에 승차감을 보강하여 만든 신제품 「오틀모 골드」를 출시했다.

이 「오틀모 골드」는 고성능 조종안정성에 승차감을 높이도록 개발된 타이어로 트레드 부위의 4열 직선 그루브는 빗길에서의 배수 성능이 뛰어나며, 중심의 좌우로 배열된 삼각 트레드 패턴은 타이어의 제동성과 배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60, 65시리즈의 단면폭과 특수 배합고무가 연출하는 승차감은 고성능 타이어에서는 비교적 볼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타이어에서는 이 제품에 ‘신 개념 타이어’라는 표제어를 붙였다.

**한타문화 정립을 위한 워크숍 열려**

한국타이어제조(주)에서는 급

변하고 있는 기업환경 속에서 한타인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정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강한 기업으로서의 체질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계층별로 총 5차에 걸친 토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설정하고, 이를 최종안 정립에 반영하여 비전, 경영이념, 사훈 등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TOPRO운동 결의**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대덕연구단지로 이전을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연구환경 조성 및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식개혁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TOPRO운동은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의식개혁을 통해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로중에서도 TOP이 됨으로써 한국타이어가 다가오는 21세기의 타이어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 우성산업**

**창립 35주년 기념식 거행**

우성산업은 지난 2월 1일 경남 양산 본사 구내식당에서 김동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갖고 장기근속자 33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사장은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주인정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장인정신, 모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나가는 창의정신, 구각을 벗고 새분야를 개척해나가는 자주정신을 사표로 정착해서 세계 최고의 생산성 구축, 부단한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한 품질혁명, 각부문 능력 및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어줄 것을 당부했다.

**아람회 농아실습생에게  
구정선물 전달**

우성산업 양산공장 아람회(회장 강윤화, 총무과)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농아실습생 15명에게 지난 1월 구정을 맞아 그동안 공장내에 설치, 운영하여

얻은 자판기 수익금으로 훈훈한 동료애가 담긴 선물을 전달, 주위 사우들로부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아람회 회장인 강윤화 사우는 “자칫 잘못하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기 쉬운 농아자들이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발견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그리고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애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입사원 교육특강**

우성산업은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양산소재 해운자연농원에서 '93년도 신입사원 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김동철 사장은 특강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많고, 국외적으로는 유럽공동체의 지역주의 가속화에 따른 수출시장의 벽이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수출경기 부진에 따른 UR조치 등으로 국내시장의 개방압력은 날로 고조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하고 “젊고 열기왕성한 신입사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과 전세계시장을 향해 무한히 뻗어가는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우성산업이 지향하는 공동목표를 향해 일로매진하여 회사 발전

의 기틀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공장 남성우 사원  
대통령상 수상**

부산공장에 근무하는 남성우 사원이 지난 3월 10일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열린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적인 직장인상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남성우 사원은 1959년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우성산업에 입사하여 30여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속에서도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은 역경과 고난을 참고 견디어 극복해나가는 장인정신 속에서만 꽃피울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타이어 성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인이 될 수 있었다.

평소 남성우 사원은 후배 사원들에게 근면, 성실한 표본으로 타이어는 인간의 행복과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품의 한 부분이 나의 가족의 행복과 생명에 직결한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빚어왔다고 한다.

보다 좋은 조건과 대우를 좇아 부나비처럼 넘나드는 젊은 세대들, 적당주의에 만연되어 절제할 줄 모르는 세대들에게 남성우 사원의 모범적인 30년은 좋은 귀감이 되고도 남을 듯하다.